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한 적 없다”



사실 자브로프와 맞대결을 앞둔 권아솔이 원주 치악산에서 산악훈련을 하며 승리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둘의 일전은 9일 전라남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다. 사진제공 | 로드FC

9일 '로드FC 056'서 자브로프와 대결 치악산 훈련 등 원주에서 3개월 합숙

ROAD FC 로드FC 전 라이트급 챔피언 권아솔(33·FREE)의 복귀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5월 만수르 바르나위(27·TEAM M AGNUM/TRISTAR GYM)와의 대결이 끝난 후 약 6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른다.

권아솔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케이지 복귀를 공식발표했다. 은퇴설에 휩싸인 것에 대해 설명했고, 당시 유력한 상대로 꼽혔던 샤릴 자브로프(35·AKHMAT FIGHT CLUB)와의 대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아솔은 “은퇴는 앞둔 말이었다. 당시에 은퇴하면 도망가는 것 같았다. 만수르를 꼭 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케이지에 설 뜻을 전했다.

권아솔의 복귀전은 9일 전라남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굽네몰 로드FC 056 무대에서 열린다. 상대는 앞서 유력한 상대로 꼽힌 자브로프다.

권아솔은 경기가 결정된 후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로드FC 전 밴텀급 챔피언’ 김수철과 함께 원주

로드지에서 3개월 합숙에 들어갔다. 치악산 산악 훈련을 통해 체력을 증진시키며 역대 최고의 몸을 만들고 있다.

권아솔은 6일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한 적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이전 약했던 내 자신에 대해 자책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성과는 분명 좋았다. 권아솔의 훈련을 함께한 김수철은 “처음 왔을 때와 달리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 체중도 식이요법을 따로 하지 않는데도 75kg 정도를 꾸준히 유지한다. 역대 최상의 몸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아솔은 “머리를 비우고 운동만 해 와서 마음이 편하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 이번 경기에서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많이 지켜봐 달라. 비난, 비판, 응원 무엇이든 좋다”고 밝혔다.

권아솔은 지난 5월 100만 달러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패한 후 큰 비난에 시달렸다. 이를 만회하고 완벽한 재기를 위해 그동안 해왔던 복싱, 도발도 자제하고 오직 운동에만 집중해왔다.

경기에만 집중한 권아솔은 과연 멋지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결과는 9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굽네몰 로드FC 056 메인이벤트를 통해 알 수 있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볼빅 아마추어골프’ 최강전 김정수-유지민 남녀부 우승

국내 최고 권위의 미드 아마추어골프대회로 평가받는 ‘제9회 Volvik 코리아 아마추어 최강전’의 남녀 그린재킷과 레드재킷의 주인공이 모두 가려졌다.

김정수와 유지민은 4~5일 이틀 동안 경북 예천 한백CC&노블리아(파72)에서 36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진행된 이 대회 결선에서 각각 남성과 여성부 챔피언에 등극했다.

Volvik 코리아 아마추어 최강전은 ㈜볼빅(회장 문경안)이 주최하고 한국미드 아마추어골프연맹(회장 오기중)에서 주관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미드 아마추어골프 대회로 1~3차 예선을 거쳐 결선에 진출한 남성부 100명과 여성부 28명 등 총 128명이 참가해 우승 경쟁을 펼쳤다.

남성부의 그린재킷을 차지한 김정수는 1라운드에서 3위에 머물렀지만 2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5언더파 139타를 기록해 2위 조백균(2언더파 142타)을 3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조백균은 첫날 4언더파 68타 선두였지만 이날 2오버파 74타로 부진했다. 3위는 1오버파 145타를 기록한 송형근이 차지했다.

남성부 우승을 차지한 김정수에게는 그린재킷과 우승 트로피,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볼빅 거리측정기 레인지파인더와 8.5인치 치 스포츠 캐디백, 우승 기념 로고볼 10여점이 수여됐다.

여성부 우승의 영예를 거머쥔 유지민은 1라운드에서 5오버파 77타(7위)로 부진했지만 2라운드에서 2오버파 74타로 선전하면서 최종합계 7오버파 151타로 역전승을 거뒀다. 유지민에게 5타를 뒤진 최지호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유지민은 부상으로 레드재킷과 우승 트로피,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볼빅 거리측정기 레인지파인더와 8.5인치 스포츠 캐디백, 우승 기념 로고볼 10여점을 받았다.

고봉준 기자

스포츠동아-XGOLF 2019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후보 -킹스데일 골프클럽

홀마다 설계 다른 ‘명품 코스’... “도전 정신이 생긴다”

킹스데일 골프클럽(대표이사 김종해)이 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 XGOLF(대표 조성준)가 공동 주최하는 2019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후보로 선정됐다.

2012년 5월 개장한 18홀 골프장 킹스데일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고객들이 남긴 평가에서 전체 9.2점을 받았다. 그린피 만족도(9.5)와 코스 관리(9.4), 캐디 서비스(9.4), 식음료 만족도(9.3) 등에서 모두 9점대의 높은 평점을 얻었다.

킹스데일은 고객들의 평가 라운드를 거쳐 10대 골프장 최종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평가 라운드는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내 골프부킹 서비스 XGOLF 채널을 통해 16개 후보 골프장을 예약한 고객이 남긴 후기를 11개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반영한다. 평가 라운드 이용후기와 후보 선정 당시 이용후기 점수를 각각 50%씩 합산해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을 최종 선정한다.

충북 충주시 주덕읍에 자리한 킹스데일은 코스 품질과 더불어 뛰어난 접근성으로 이름이 알려진 대중제 골프장이다. 북충주IC에서 5분 거리로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국토 정중앙에 위치해 전국을 아우르는 모임을 열기에도 적합하다.

킹스데일은 오르막 코스인 파5 6번 홀을 제외하면 티잉그라운드에서 그린 위치를 직접 파악할 수 있어 자신만의 코스 공략법 구상이 가능하다. 초보자들은 물론 숨은 고수들이 킹스데일을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홀



킹스데일 골프클럽

마다 설계 방법이 달라 공략하는 재미도 더했다. 주변 자연지형을 감상하는 재미는 덩이다.

킹스데일을 찾은 골퍼들은 XGOLF 채널을 통한 후기에서 “도전 정신이 생겼다”는 평을 남겼다. 지난날 킹스데일을 방문한 이 모 씨는 “가성비 최고의 골프장이다. 캐디의 센스 있는 운영도 인상적이었지만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킨 코스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여름철 이곳에서 골프를 즐기 오고 모 씨 역시 “코스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 깜짝 놀랐다. 디봇을 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면서 “홀마다 고저 편차가 있어서 도전 정신이 생겼다. 조만간 다시 킹스데일을 찾을 예정이다”고 호평했다.

고봉준 기자 shoutout@donga.com

시흥시청-화순군청 女단체 결승 스매싱 ‘회장기 배드민턴’ 남자부는 밀양시청 vs 광명시청

시흥시청과 화순군청이 ‘2019 회장기 전국대학실업 배드민턴 연맹전’ 여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맞붙는다.

시흥시청은 6일 전남 구례군 구례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여자 일반부 단체전 4강전에서 영동군청에 3-2 역전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1단식에서 백수민이 영동군청 김유림에게 2-0(21-15 21-10)으로 승리하며 앞서나갔다. 그러나 2단식과 3복식을 모두 내주며 탈락위기에 몰렸다. 4복식 노연람-최예진이 김유정-정효진에게 접전 끝에 2-1(21-13 16-21 21-19)로 이기며 마지막 5단식까지 승부를 이어갔고, 마지막 주자 이별님이 김빛나를 2-0(21-17 21-19)으로 따돌리며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화순군청도 전주이, 정나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약하며 포천시청을 3-1로 꺾었다.

남자 일반부에서는 밀양시청이 준결승에서 수원시청과 치열한 승부 끝에 3-2로 이기고 결승에 합류했다. 밀양시청은 만원전 2단식 주자 이현일이 홍지훈에게 패했지만 김동훈과 강형석이 각각 1단식과 5단식에서 이기며 승리를 이끌었다. 광명시청도 당진시청을 4강전에서 3-2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광명시청은 복식 2경기에서 당진시청에 모두 패했지만 한기훈, 최영우, 고준형이 1단식·2단식·5단식을 모두 이겨 승리했다. 여자 대학부에서는 영호남 전통의 배드민턴 명문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조선대가 결승에 올라 7일 우승을 다툰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남자프로농구 (5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전지연	10	8	2	0.800	0	4승
2	SK	11	8	3	0.727	0.5	1승
3	DB	10	7	3	0.700	1	1패
4	KCC	12	8	4	0.667	1	1승
5	KT	10	5	5	0.500	3	1패
6	인삼공사	11	5	6	0.455	3.5	1승
7	삼성	11	4	7	0.364	4.5	1패
8	현대모비스	10	3	7	0.300	5	4패
9	오리온	11	3	8	0.273	5.5	2패
10	LG	12	3	9	0.250	6	1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팀	도움	선수	팀	리바운드	
① 라건아	현대모비스	21.7	① 허훈	KT	6.4	① 라건아	현대모비스	14.9
② 라엔	LG	21.7	② 이정현	KCC	6.2	② 라엔	LG	11.5
③ 홍국생명	SK	21.4	③ 김시래	LG	6.1	③ 위니	SK	10.6
④ 미네스	삼성	20.3	④ 최준용	SK	4.6	④ 힐로웨이	전지연	10.2
⑤ 브라운	인삼공사	19.5	⑤ 김선형	SK	4.5	⑤ 윌리엄스	KCC	9.7

프로배구 (5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GS칼텍스	4	4	0	12	347	283	4승
2	현대건설	4	3	1	9	319	286	2승
3	한국생명	4	2	2	7	344	312	1승
4	인삼공사	5	2	3	5	461	503	1승
5	도로공사	5	1	4	4	390	436	3패
6	IBK기업은행	4	1	3	2	294	335	3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볼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볼로킹
①	디우프	인삼공사	167	①	한수지	GS칼텍스	0.93
②	테일러	도로공사	92	②	정대영	도로공사	0.68
③	리츠	GS칼텍스	91	③	김재영	한국생명	0.67
④	이재영	한국생명	89	④	이다영	현대건설	0.64
⑤	박정아	도로공사	77	⑤	리츠	GS칼텍스	0.57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OK저축은행	6	5	1	14	510	485	1패
2	대한항공	6	4	2	12	493	486	2승
3	우리카드	6	4	2	10	537	526	1패
4	삼성화재	6	3	3	9	547	557	1패
5	현대캐피탈	6	3	3	8	594	580	2승
6	KB손해보험	6	1	5	6	623	618	5패
7	한국전력	6	1	5	4	501	553	1패

NHL (6일)

●경기결과

뉴욕	4-1	오타와	필라델피아	4-1	캐롤라이나
베가스	2-1	콜럼버스	몬트리올	5-4	보스턴
토론토	3-1	LA	뉴저지	2-1	워싱턴(승부차)
애틀랜타	4-1	플로리다	캘거리	4-3	애리조나(연장)
SL루이스	2-1	밴쿠버(연장)	미네소타	4-2	애너하임
세인트루이스	4-2	시카고			

NBA (6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서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필라델피아	5	1	1	밀워키	5	2
1	보스턴	5	1	2	인디애나	3	4
3	토론토	4	2	3	디트로이트	3	5
4	브루클린	3	4	4	클리블랜드	2	5
5	뉴욕	1	6	5	시카고	2	6

●경기결과

애틀랜타	108-100	샌안토니오	LAL	118-112	시카고
덴버	109-89	마이애미	오클라호마	102-94	올랜도
살트레이크시티	122-120	인디애나(연장)	보스턴	119-113	클리블랜드

아마추어 경기결과 (6일)

●축구

●2019 내셔널리그(경주시민)

● 챔피언결정전 1차전=경주한수원 0-0 강릉시청

●오늘의 토트 (7일)

●야구토트 매치 14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1.07 (목) 19:00	캐나다 vs 한국	고척스카이돔

경기 예고

●남자프로농구 (7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전자랜드	(인천삼산)	현대모비스
오후7시, SPOTV2		

●프로배구 (7일)

●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IBK기업은행	(화성종합삼삼)	한국생명
오후7시, SBS스포츠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삼성화재	(대전충무)	KB손해보험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7일)

●축구

●2019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화천, 오전10시)

●테니스

●2019년 ITF Gemdale 서귀포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제 주니어 테니스투어대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배드민턴

●2019 차이나푸저우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중국 푸저우)

●핸드볼

●제22회 아시아남자핸드볼리그(강원도 삼척, 오후12시)

●탁구

●2019 ITTF 팀 월드컵(일본 도쿄)

●스쿼시

●2019 한국 대학 스포츠대전(부산)

●유도

●2019 회장기 전국유도대회(보령종합체육관, 오전10시)